

# 늦가을밤 코로나 치유 재즈선을 올린다

색소포니스트 박수용 31일 남구문화예회관 '코로나 희망 콘서트'  
10인조 앙상블 공연·강윤숙 등 협연...무료 공연·온라인 생중계

가을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코로나 19를 극복하려는 소망을 담은 재즈선율이 울려 퍼진다. 광주 지역 재즈대중화에 앞장서 온 색소포니스트 박수용(호남신학대 음악학과 교수)이 '코로나 19 희망 콘서트 We Shell Overcome'을 선보인다. 31일 오후 7시30분 광주 남구문화예회관에서 열린 공연은 시민들과 연주자들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치유의 음악회로 꾸며진다. 특히 정통재즈 구성에 변화를 준 10인조 크로스오버 앙상블이 무대에 오르며, 기본 재즈과르텟 구성에 플루트, 바이올린, 스트라키보드가 합류해 풍성한 선율을 선사한다. 공연 프로그램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를 담은 'Forward'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창작곡으로 구성됐다.

'Momentum(모두가 힘을 합하며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 'A Prayer For Peace(인류의 평화를 위한 기도)', 'Blooming(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등의 창작곡을 들려주며, 한번쯤 들어본 듯한 친숙한 리듬과 아름다운 멜로디가 10월의 마지막 밤을 장식한다. 이날 무대에는 플루트 황태동·김선정, 키보드 이성환, 재즈피아노 강윤숙, 드럼 윤영훈, 바이올린 백진선, 기타 이관우, 보컬 임재희, 베이스 한수정 등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생중계한다. 박 씨는 특히 지난 11일 광주시가 자매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 인도네시아 메단, 독일 라이프치히, 러시아 카잔 등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기획한 뮤지컬 프로젝트에도 광주 대표로 참여해 색소

폰을 연주했다. 이 프로젝트 제목은 '우리는 극복할 것이다'로 각곡을 대표하는 17명의 뮤지션이 음악가이자 작곡가인 아론 프라도의 곡을 연주,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이와함께 박 씨는 앞서 지난 27일 열린 재즈피아니스트 강윤숙의 'ACCOMPANY' 공연에도 참여해 색소폰 연주를 들려줬다. 이날 공연에서는 'Sing for the moment', 'A song for you', 'Momentum', 'Blooming' 등을 선보였다. 박수용은 재즈의 명문 미국 뉴스쿨과 뉴욕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2010년부터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17 양림 국제 재즈페스티벌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문화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현재 지역 유일의 24인조 재즈오케스트라 단장과 지휘를 맡고 있다. 또, 문화예술 단체 '아트플래닛'의 대표로 활동, 합창단 및 국악단, 오케스트라, 오페라단의 협연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펼치고 있다. 문의 010-7200-162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색소포니스트 박수용이 오는 31일 광주남구문화예회관에서 '코로나 19 희망 콘서트-We Shell Overcome'을 개최한다.

# “격랑의 삶 속 시가 중심 잡아줬다”

등단 26년만에 첫 시집 ‘물 밖에서...’ 펴낸 광주 출신 김호균 시인

아시아문화전당 전문위원 역임  
31일 민들레 소극장서 출판기념회

“선배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시 안쓰고 뭐하나?’고 물어오곤 했어요. 어떤 이들은 ‘네 시집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다’고 말하기도 했구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이제 할 말이 생겼네요.”



광주 출신 김호균 시인. 지난 1994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지만 그동안 ‘시집 없는 시인’으로 살아왔다. 그가 등단 26년 만에 첫 시집 ‘물 밖에서 물을 가지고 놀았다’(겉는 사람)를 펴냈다.

“90년대 중반 한 출판사에서 시집을 내자는 제안이 왔었어요. 결과적으로 준비하다 끝내 묶어내지 못했지만... 80년대 격변의 시기 속에 썼던 시들은 90년대라는 당대와 조응하기엔 부족하거나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시집을 건네는 그의 표정에는 오랜 숙제를 끝낸 후련함 같은 게 어려 있었다. 그러나 뒤이어 “너무 늦게 왔지만 늦은 만큼 세상과 새롭게 마주하고 싶다”는 말이 들려왔다.

시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문화전당(ACC) 연구교류과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다. 이전에는 북구 문화의집을 중심으로 문화운동을 하기도 했다. 모두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이었지만 때로는 “격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다고 보는 편이 맞다. 그럼에도 “중심을 잡고자 애썼는데, 그 중심의 키를 잡아준 것이 시”였다.

그가 중앙 일간지 신춘문예에 등단했을 때, 지역에서 화제가 됐다. 남도 시문학을 이끌 신예가 나타났다는 상찬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일이다.

“광주정년문학회에서 품평회 같은 것을 했는데 신춘문예에 당선한 ‘세숫대야論’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어쨌든 다행히 가장 상금이 많았던 세계일보(200만원으로 기억한다)에 내시가 뽑혔죠.”

그는 당시에 지역 일간지에 동화도 당선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시인은 “신춘문예 상금으로 농성동에 있는 이충 셋방에서 오지동 낚은 아파트로 옮겼다”며 “말 채운이를 키울 수 있었다”고 멋쩍게 웃었다.

“이번 시집 제목이 특이하다”는 물음에 “세상 속에 있고, 세상 속에 빠지지 말자”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유고슬라비아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의 “당장 쉬운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사유

를 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세상은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 네 편과 내 편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이것’과 ‘저것’ 사이에는 해아려 볼 만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 경계와 이분법을 치열한 사유를 통해 극복해 가자는 의미입니다.”

“불쑥 쳐들고 있는 머리 꼭대기/ 양방울 눈을 한 쩡뽕어는/ 갈대를 휘게 하는 바람을 보았으리(중략)/ 참호를 파놓고 눈자위를 감벽 감벽 사주경계하느라 여념 없는// 그 둘러보는 힘이 없었다면/ 쩡뽕어는 쩡뽕어가 아니었으리”(‘쨍뽕어1’중에서)

위 시 ‘쨍뽕어1’에서 보듯 시인의 사유는 은유적이다. 또한 어떤 것의 경계를 넘는다. 평론가 김형중의 표현대로 “세속에 함몰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훌쩍 날아오르는 초월을 감행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의 존재를 획득한다.

“오랫동안 ACC에서 몸담았던 터라 남다른 애정이 있을 것 같다”는 말에 “문화예술은 본질적으로 ‘이상’을 먹고 자란다”고 예뉘러 말했다. 그러면서 “ACC가 ‘꿈을 포기하는 순간 죽음’이다”며 “잠으로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현실로 뒷걸음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그의 시를 향한 꿈은, 우리가 발 딛고 선 지역 공동체 꿈과도 다르지 않아 보였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시를 믿는다. 시는 나를 망가지지 않게 지켜주었다. 낡은 안경처럼 오래되었으나 그것으로 오롯이 내가 가야 할 앞길을 놓지 않았다. 누군가 만들어놓은 경계에서,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날이 오면 좋겠다.”

한편 출판기념회가 오는 31일 오후 5시 민들레 소극장(광주시 동구 동계천로 111)에서 열린다. 문의 010-6524-525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지역 무형인문자산 발굴 콘서트 열린다

29~30일 전남대 6명 전문가 참여

광주지역 무형인문자산을 발굴하는 ‘인문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센터장 양순자 교수)는 29~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기념홀 및 강의실에서 인문콘서트를 개최한다.

‘인문토크’와 광주를 읽는 6개의 렌즈’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류재한 교수, 김경수 향토지리학자, 하성흠 민중화가, 이난초 명창, 김정호 향토사학자, 박하선 사진작가 등 6명의 인문학자, 예술가, 지리학자가 참여한다.

특히 이번 토크콘서트는 관객들이 ‘사람책(Human Book) 목록 중에서 읽고 싶은 책을 고르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휴먼 라이브러리(Human Library) 체험 방식으로 진행된다. 종이책에서 느낄 수 없는 생생한 이야기와 경험 청취



류재한 교수 하성흠 화가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방적 지식 전달방식이 아닌 문화, 예술에 대한 자유로운 담론을 나누자는 취지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지역 인문자산을 세계화하고, 세계의 인문자산을 수용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인문도시광주’ 일환으로 추진된다. 문의 062-530-329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GB작가스튜디오 박남재 화백 탐방

(재)광주비엔날레의 10월 GB작가스튜디오 탐방이 29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방송된다.

이번 GB작가스튜디오 탐방은 국내 서양화 단에서 추상과 구상을 넘나들면서 한국적 인상주의를 구축한 박남재(사진화백)의 70여년 화업을 돌아보는 자리이다.

1929년 태어난 박 화백은 오지호 화백을 만나면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아흔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왕성한 창작열을 이어오고 있는 박 화백은 수십 년 동안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하며 지역의 화단을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의 062-608-423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 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남화·여화장·굽맞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 보광세탁소

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농장다리앞)  
각종 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 의류  
수선 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 응추해신삼계탕

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

### 평화이사소파

북구 운암동 794-13(대자초등학교 옆)  
가정용, 영업용 불박이, 톨폼파, 업소용 제작 천장이  
리폼 전문 각종 소파 천장이 수리 및 제작 전문공방  
☎ 062)371-2110, 010-9404-3571

###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로79번길87(인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 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 대연건설

동구 제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건설업·설비·토목·공방·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

### 하나부동산사무소

동구 계림동 254-4번지  
주택·상가·토지·공장부지·임야 전문  
각종 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 본위  
☎ 062)233-5155, 010-3615-5155

###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 명품웃수선전문점

나주시 중앙로63(나주교회건너편)  
남녀의류수선, 각종명품웃수선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친절 신용 본위  
☎ 010-2474-1457

###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 새서림떡방앗간

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정문  
참기름, 고추방아, 떡주문일체  
☎ 062)526-4629, 010-5474-4629

### 매산철거·삼보소개소

북구 자산로 32(신안동)  
건물상가·집수리, 오래된반 폐기물처리, 고철  
파지, 스티븐 특수이장, 조적, 방수, 철근, 콘크리트페인트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장·인부알선  
☎ 062)528-7005-6, 010-3625-2786

###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